

황신혜 "유튜브 채널 해킹 당해 사라져...복구 중"

등록 2026.06.14 15:30:00

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배우 황신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해킹 당했다.

황신혜는 13일 소셜미디어에 "제 유튜브 계정이 최근에 해킹을 당해서 지금 사라진 상태"라고 말했다.

그는 "정말 당황스럽지만 열심히 복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. 곧 다시 돌아올 테니 응원 부탁한다"고 했다.

황신혜는 7년 간 유튜브 채널 '황신혜의cine style'을 꾸려왔다.

이 채널을 통해 패션·요리 등에 관해 얘기했다.

황신혜 채널은 현재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.

황신혜는 현재 KBS 1TV 예능프로그램 '황신혜의 같이 삽시다'를 진행 중이다.

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 연예인을 초대해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다.

황신혜는 두 차례 이혼했다.